



광주 효광중에 통일비 세웠다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인 15일 광주 효광중학교는 교내 늘푸른 등산 앞에서 '통일비(높이 350cm, 폭 130cm)' 제막식을 갖고 민족 통일을 염원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은 광주 YMCA 무진관에서 615명의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공동선언에 기초한 화해·협력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중·고교 '콩나물 교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운봉군 광주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 2007년 각각 38명과 35.28명에서 2008년 38.49명, 36.45명, 2009년 38.61, 37.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증가

중 93·고 80% '과밀'

학습의 질 저하 우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중학교 34.7명과 고등학교 35.1명보다도 각각 4명과 1명 가량 많은 숫자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은 중학교의 경우 84개교 중 17곳이며 학급당 36~40명인 과밀학급도 61개교로, 과밀학급 이상이 전체의 93%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도 전체 65개교 중 수완고와 송덕고 등 2곳은 초과밀학급이고, 과밀학급도 50곳으로, 과밀학급이 80%에 달한다.

다만,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 33.79명에 이르던 학급당 학생수가 2009년에는 29.79명으로, 교육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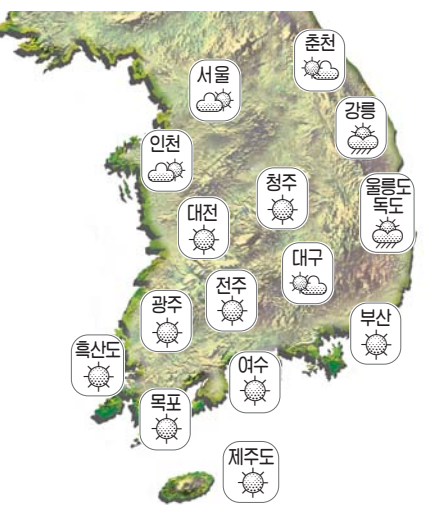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 19시 49분
달돋이 00시 18분
달질 12시 48분

따가운 햇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지역도 있겠다.

광주	맑음	17/31℃
목포	맑음	17/27℃
여수	맑음	18/26℃
완도	맑음	16/27℃
구례	맑음	16/30℃
해남	맑음	15/29℃
장흥	맑음	16/29℃
고흥	맑음	15/29℃
순천	맑음	17/29℃
영광	맑음	16/28℃
진도	맑음	15/28℃
전주	맑음	16/29℃
남원	맑음	16/29℃
속초	맑음	16/24℃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목포 07:30	00:2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목포 20:06	13:0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	0.5~0.5m	여수 02:15	08:58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	0.5~1.0m	여수 15:17	21:00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씨						
최저/최고	18/30	18/30	19/28	20/26	20/27	19/27



한심한 광주 교육위원

인사비리 정광학원 제재 한달만에 취소 요구

전교조 "교장 사퇴하면 학생 피해 해소될 것"

광주시교육청이 인사비리 등을 저지른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린 것을 두고, 시교육위원회 한 위원이 제재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문동주 위원은 15일 시교육청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내린 행정·재정적 조치는 어려운 결단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냉난방 시설비 삭감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이 제재 취소를 요구한 항목은 냉난방 설치비와 교실문 교체비 등 7억여원으로, 이를 받아들일 때 전체 규모가 8억 6천여만원인 정광학원의 재정적 제재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더욱이 시 교육청이 불과 한달전에

내린 제재를 되돌려야 할 교육위원회 "법인 측 두둔"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주장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시 교육위원들은 시 교육청의 제재가 오히려 약하다고 주장하는 등 위원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학생 피해를 걱정했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교장 자진사퇴' 등을 거론해야 한다"며 "교장이 물러나면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학생 등의 처지를 고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일부 교육위원이 한달여만에 다시 번복하라고 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사회적 일자리·기업 전국 최고 수준

70곳에 2천여명... 문화 예술 부문 증가세 '법정최저임금' 운영비 보조 수단 이용도

광주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의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회적 일자리는 59곳, 사회적 기업은 11곳 등 70곳(근무 인원 2천여명)에 달하며, 이는 전국 1천9곳(사회적 일자리 765곳, 사회적 기업 244곳)의 7%에 해당되는 것이다.

서울 224곳에 이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으며, 광주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되는 부산은 55곳에 불과하다. 전남은 사회적 일자리 38곳, 사회적 기업 9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와 기업 근무자들은

최저임금인 83만7천 원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고,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공공성을 가진 지역 내 필요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광주에 이처럼 사회적 일자리·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는 가정주부나 대졸자 등 젊은 층의 취업 기회가 적은 지역 내 일자리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가사나 간병 도우미 등 일상적인 테마도 있지만 최근에는 문화나 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나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직장을 찾지 못한 젊은

층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성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퓨전국악연구회 아이리어나' '신명아트센터' 등 지역 내 문화 예술 관련 단체들이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에 참여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기업은 전체 70곳 중 14곳에 달한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 등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나 수익 창출보다는 단순히 인건비나 운영비 보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법정최저임금에 불과한 근무자들에게 대한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거나 근무자들의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 기업=취약계층에

계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인건비의 30%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사회적 기

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광주·전남 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 본격 활동

'광주·전남 사회적기업협의회'가 16일 창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개 단체 및 기관들은 16일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광주·전남 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대회를 갖는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업으로서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최근 늘고 있는 지역 내 사회

적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교육, 문화, 환경, 로컬푸드, 돌봄 서비스 등 모두 5개 분과로 구성되며, 실무자 회의를 통해 연대체계를 갖추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미리 배포한 창립선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시민사회단체가 긴밀하게 결합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쌍촌동·화정동 일대 20분간 정전

굴착기 배전 선로 건너다...7,946가구 주민 큰 불편

광주시 서구 쌍촌동과 화정동 일대에 발생한 정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전남본부는 15일 "오늘 오전 10시 2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쌍촌동·내방동 일대에 20여분간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

다. 이날 정전으로 이 지역 상가·오피스텔·주택 등 7천946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일부 건물에서는 복구가 늦어지면서 업무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전 측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기

아자동차 앞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 매립 공사 과정에서 굴착기가 땅속 배전 선로를 건드리면서 일부 선로가 끊어져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끊어진 해당 공사 현장에 서 선로를 교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 보청기의 지존성
세기보청기

세기는 보청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보청기 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가 높으며, 보청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588-8419 / 060-222-0100